

## 1/18(화) 출애굽기 5-8장 왜 떠나야 하는가?

요셉으로 인해 환대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.

억압당할 뿐 아니라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(1:11,16).

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지만 <해방>이 다는 아닙니다.

탈출과 관련된 15장 이후에도 아직 25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.

❶ 하나님은 <언약>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.

❷ 사람의 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<종>, <백성>이 될 것입니다.

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,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.

❸ 그리고 그들은 <약속의 땅>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행진할 것입니다.

① 3:6,10,15, 4:5, 6:3,5-6) ② 3:12,18, 4:22-23, 5:1,3, 8:27, 9:1-13 ③ 3:8,17, 6:4,8

단 한 번의 탈출과 해방으로 문제가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

금새 <홍해>에 가로막히고 <군대>에 쳤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(14장).

매 순간 <출애굽>이 필요합니다.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.

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. 어디로 갈 것인지를 중요합니다.

우리 하나님은 <끝까지>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.

해방과 거듭남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.

공동체 안팎에서 부정과 불만, 펑박이 불어 닥칩니다(5장).

리더십이 흔들리고 모세 스스로도 도망칠 길을 찾지만,

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(6장).

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일 뿐입니다.

하나님은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.

각 재앙은 사람들이 섬기던 이집트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.

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의 실체를 보이십니다(합2:18).

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이십니다.

본문을 통독하며 목상해 보십시오. 나는 자유와 해방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?

❶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?

❷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